

무주곤충박물관 특별전 열린다

9월 10일까지 이화여대·전북대·충남대 자연사박물관 소장 전시물 50여점 만날 수 있어

무주군은 오는 9월 10일까지 무주반디랜드 곤충박물관에서 '우리 문화 속 생물이야기'를 전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여름 성수기를 맞아 무주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이화여자대학교와 전북대학교, 충남대학교 자연사박물관 소장 전시물 50여 점이 전시 중이다.

무주군에 따르면 '우리 문화 속 생물이야기' 전시에는 그림·책·사진 등에 소개된 다양한 생물들에 관한 인문학적 요소와 식물 박제물과 표본 등을 통해 자연사적 관점에서도 폭넓게 생물들을 바라볼 수 있다.

또 매주 토요일마다 방아깨비와 메뚜기 등 곤충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을 열어 관람객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무주반디랜드 곤충박물관 백경순 학예사는 "생태계를 이루는 생물 한 종, 한 종이 소중하다는 것을 이 전시를 통해 전달하고 싶었다"며 "전시품들은 각 대학 관련 분야의 대학원생과 전문가들이 참여해 완성한 것이라 의미가 깊



'우리 문화 속 생물이야기' 포스터

다"고 전했다. 이어 "다양한 생물들이 날고, 뛰고, 기고, 헤엄치는 동작 하나하나가 작품에 표현이 돼 자연이 가진 미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다는 게 이번 전시의 매력"이라며 "각 생물에 부여된 상징적 의미를 알아보는 재미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군은 2021년 '무주의 들벌 속 생물들', 2022년 '갑각류: 단단한 녀석들' 등 매년 성수기 특별전을 열어 무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해왔다.

관객 김 모 씨(40세, 전주)는 "아이들 데리

고 왔다가 우연히 전시회를 보게 됐는데 아이들이 우리 주변 속 생물들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한편, 무주반디랜드 곤충박물관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입장마감 오후 5시)이며 오는 여름 성수기를 맞아 8월 20일까지는 휴관 없이 운영한다.

무주반디랜드 곤충박물관에는 천연기념물이자 환경지표 곤충인 반딧불이를 비롯해 국내·외에 서식하는 다양한 곤충 1만여 종이 실물 전시되고 있으며 2백여 종의 아열대 식물들을 볼 수 있는 생태온실과 덕유산 최상류부터 금강하구까지에 이르며 서식하는 다양한 물고기와 수달, 열대어를 함께 볼 수 있는 수족관 시설도 조성돼 있다.

이외에도 반디별천문화과학관뿐만 아니라 야외 물놀이장 등 학습·놀이시설과 통나무집과 청소년수원원 등 숙박이 가능한 시설도 자리하고 있어 온 가족이 함께 즐기기에 안성맞춤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북문화관광재단, PCO 초청 팸투어

호남권 관광·마이스 활성화 교류협력 협약 후속사업으로 진행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은 광주 문화관광재단과 함께 2박3일 일정으로 한국 PCO협회 회원사 등 국제회의기획업체 임직원 30여명을 초청, 팸투어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호남권 관광 및 마이스 활성화 교류협력 협약 후속사업으로 진행된 이번 팸투어는 전라북도 유니크베뉴 회의시설 답사 및 연계 투어 프로그램을 기획을 위한 주요 관광콘텐츠 체험, 전북마이스얼라이언스 회원사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을 진행했다.

김범석 관광마케팅 팀장은 "이번 팸투어는 국내 주요 PCO를 초청해 전북도만의 특색을 가진 회의시설을 직접 답사하고, 또 재단 및 전북마이스얼라이언스 회원사 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실질적인 행사 유치에 보다 많이 이



워질 수 있도록 했다"면서 "이번 팸투어를 계기로 향후 전라북도 MICE 행사 유치가 확대될 것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권익현 부안군수·최응천 문화재청장, 문화유산 풍수해 점검

권익현 부안군수와 최응천 문화재청장은 27일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하기 위해 부안군 문화유산 풍수해 점검을 실시했다.

권익현 군수와 최응천 청장은 이날 부안군 대표 문화유산 중 한 곳인 내소사를 방문해 문화유산 및 주변시설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안전관리 상태를 확인했다.

부안군은 앞으로도 집중호우 및 재난재해로 인한 문화유산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기상정보 모니터링을 통한 사전 대비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모니터링 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조치를 취하는 적극행정을 펼칠 예정이다.

권익현 군수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기상이변



에 따른 각종 재난으로부터 부안군 문화유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국기 태권도 진흥·도내 문화예술 발전 협력

태권도진흥재단-전북문화관광재단-전라북도관광협회, 협약 체결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직무대행 이종갑)은 27일,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 전라북도관광협회(회장 조오익)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직무대행 이종갑)은 27일,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 전라북도관광협회(회장 조오익)와 업무협약을 맺고 태권도를 비롯한 관광·여행 및 도내 문화 예술 발전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태권도원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태권도진흥재단 이종갑 이사장 직무대행과 전북문화관광재단 이경운 대표이사, 전라북도관광협회 조오익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기 태권도 진흥 및 보급을 위한 협력, 상호 연계 가능한 관광·여행 및 문화예술 관련 지

원 등에 관한 협력을 약속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2023~2024 한국관광 100선' 선정에 이어 최근 '코리아유니크베뉴'에 선정된 태권도원을 활용해 태권도와 연계한 여행·관광 상품 개발 및 운영, 문화 예술 발전을 위한 협력 등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경운 전북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는 "태권도와 한국문화홍보의 발상지로서 태권도원을 기대한다. 또한 전북 관광 전진기지로서의 역할도 당부하며 전북문화관광재단은 태권도진흥재단의 노력에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고, 조오익 전라북도관광협회 회장은 "협약을 계기로 기관 간 협력을 통해 태권도 성지 태권도원을 세계에 알리고, 국내에서도 명성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전북관광협회에서도 노력하겠다"며 소감을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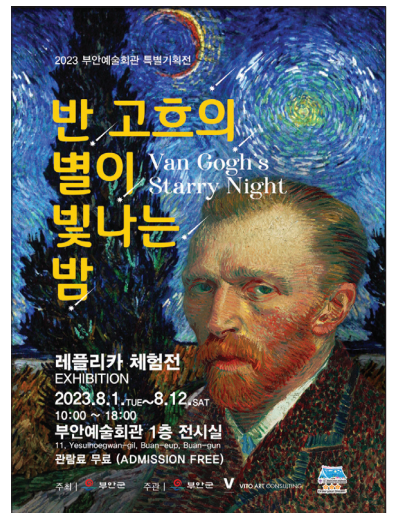
이종갑 이사장 직무대행은 "얼마 전 광역 지자체 중 전라북도가 처음으로 K-웰니스 도시에 선정되는 등 전라북도가 대표적인 휴양·치유 관광지로 입지를 다지고 있다"며 "재단이 기획해서 성황리에 판매 중인 태권도 스테이 관광 상품과 같이 성공적인 태권도 문화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을 해 가겠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부안예술회관, '반 고흐 별이 빛나는 밤' 레플리카 체험전

부안예술회관은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를 기념하여 특별기획전인 '반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 레플리카 체험전을 오는 8월 1일부터 8월 12일까지 무료로 부안예술회관 전시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전세계적으로 유명한 화가인 반 고흐의 대표작 '별이 빛나는 밤'이 도출되기까지 반 고흐의 초기작부터 10년간의 탐구여정을 따라가며 준비되었다. 반 고흐의 작품의 변화와 발전적 측면에 따라 전시는 총 5개의 색선으로 구분되고, 반 고흐의 삶을 형성한 독자적 작품들, 중요한 화가들과 주변 인물들, 중요한 화가, 편지글 등 각 색선별로 생생하고 다채롭게 전시가 펼쳐질 예정이다.

전시 이해를 돕기 위해 전시장 내에 전시해설 QR코드를 마련했고, 반 고흐의 그림 속 별자리 그리기, 퍼즐박스, 포토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즐겁고 흥미롭게 전시를 개최할 예정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전주천을 살립시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km²,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